

'점음의 예찬' 체전 팡파르

서울캠, 내일(9일) 임진각에서 개막식 ... 경주캠, 오는 18일

2001년 백상예술제가 내일(9일) '민족동국 통일대행진'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통일대행진은 경기도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진행되며 대행진 도착지인 임진각에서 백상예술제전 개막식과 통일대행진 기념식이 열린다.

이번 제전에는 축구·농구·마라톤 경기와 함께 장애물 경주인 '출발! 통일 드림팀!' 등 다양한 경기가 벌어질 예정이다.

'출발! 통일 드림팀!'은 거대한 에어 장애물 경기와 로데오 경기, 에어관에 달라붙기 게임 등을 2인 1조로 진행하게 된다. 마라톤은 10일 오전 12시 불상 앞에서 출발해 정문, 국립극장, 남산 순환도로, (구)서울예술대학, 충무로, 후문을 돌게 된다.

한편, 이번 마라톤대회와 통일 드림팀 대회에서는 순금, mp3 플레이어, 문화상품권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폐막

식은 11일 오후 6시 만해광장에서 △합합동아리 AJAX 공연 △사회학과 혼극 △사과대 소모임 마구만 공연 등이 진행되며, 가수 강산에와 디지(Deeje)가 출연한다.

올해는 백상예술제전 포스터 주인공 공개 모집과 커뮤니티를 통한 접수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경주캠의 경우 9개 단과대별 단일팀 출전형식의 백상제전이 오는 18일 황성공원 시민 공설운동장에서 시작된다.

단과대별 단일팀 출전형식의 제전은 수업 결석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며 그 성과가 좋아 올해도 이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전은 크게 정석종목인 단체경기, 개인 경기와 번외경기인 단체경기, 특별경기로 나눠 치러진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식후행사 및 각 단과대별 스탠드 이동(오전 10시~10시 30분) △단체 출발기 예선(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축구 결승(오전 11시~오후 12시) △단체 출발기 결선(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점심 시간 및 홀라후프 경연대회(오후 12시~1시) △100/400M 예선·교직원 학생대표 축구대회(오후 1시~2시) △100/400M 결선·마라톤 출발(오후 2시~3시) △인간 탄환(오후 3시~3시 30분) △OX 퀴즈 및 행운권 추첨(오후 3시 30분~5시) △폐회식 및 시상(오후 5시~5시 30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기 종목 예선은 오는 12·15일 양일간 치러지며,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결선은 16일 열릴 계획이다.



"달려!" ...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지난해 27일 열린 한기위한 미당 행사중 학생들의 눈길을 끈 세발자전거대회. 힘껏 페달을 밟으며 결승점을 향하는 승자의 환한 표정과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당황하는 여학생의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다. 연합뉴스 기사 snail11@dongguk.edu

<표> 백상예술제전 개막식(통일대행진)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오전 9시	통일대행진 발대식
오전 10시	문산가는 버스 출발
오전 11시	문산도착, 임진각까지 행진 시작
오후 1시	임진각 도착, 부대행사(보물찾기, 5형시짓기)
오후 2시	백상예술제전 개막식 (통일 퀴즈대회, 안전환 공연, 통일 대행진 우수단체 시상 및 5형시 우수상 시상, 통일염원 담은 풍선 날리기 등)

한글대장경 총목록 발간

일람표·색인 등으로 나눠

역경원(원장=김성구)이 완간된 한글대장경의 내용을 총괄하는 총목록을 발간했다.

총목록은 크게 한글대장경 일람표와 목록, 색인으로 나뉘어 있다.

또한, 색인은 △경명(經名) 가나다순 △이경명(異經名) △약경명(略經名) △고려대장경 고유번호(K)순 △부본분류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총목록 발간으로 총 318권에 달하는 한글대장경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외대 평강장학금 지급

주승균 동문 약정

한외대(학장=최달영·병리학)에 평강 장학금 1억 2천2백만원이 지급된다.

이 장학금은 92년도 한외대를 졸업한 주승균 동문이 성적이 우수한 한외대 재학생들을 위해 약정한 것으로 대학이 6백만원씩 오는 2011년 2학기까지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승균 동문은 "동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강의법 제언 - 피터 보일 교수 인터뷰

"자연스러운 수업 분위기 중요"

활발한 토론으로 학생들 수업참여 유도해야

최근 세계적으로 강의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강의법과 관련한 서적 출판과 각종 포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대학에서 여러 번 Teaching award를 수상한 피터 보일 교수(경영학)는 강의법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난달 26일 교육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한 피터 보일 교수를 만나 보았다.

- 강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개방되면서 교수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교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선택·제공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

수들의 강의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 학생들과 수업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 일방적인 수업방식보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의평가 등을 통한 교수들의 피드백도 중요하다. 학기 중간에 학생들에게 교수의 수업 준비보다 수업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다음 남은 수업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

= 학생들이 수업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질문 할 때 답을 강요하거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



라도 점수를 깎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이슈 등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면.

= 학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수는 수업 운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미국과 같이 학생들로부터 평가받는 강의평가서를 공시해 교수들이 보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기사 2면(학내보도) chof55@dongguk.edu

한·중 국제학술회의 양국 인문학 연구에 대해

본교와 중국 베이징 대학은 오는 10월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어문학, 사학, 철학을 중심으로 한·중 인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며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교측 논문발표자는 △사학=김상현(사학) 교수 △철학=유훈우(철학) 교수 △어문학=오태석(중어중문학) 교수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동시통역시스템이 제공된다.

총동창회 체육대회 개최 오는 14일 경주캠 체육관

2001 동국인 체육대회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다.

총동창회(회장=권노갑) 주최로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서울, 광주, 호남, 부산, 대구 등 지역별로 나눠 배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이 진행된다. 배구, 줄다리기는 1, 2, 3위에게 트로피가 수여되고 단체줄넘기는 1, 2, 3위팀 선수 전원 개인수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번외경기로 율농이가 진행된다.

독일자매대학 교수 강연 '신경생물학...자유지의'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한스 슈바르츠 교수(신학) 초청 학술 강연회가 오는 16일 오후 5시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자매대학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신경생물학에서 본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사사령

◇ 임 정기자

- ▲조솔기 (문과대1)
- ▲김진성 (사회과학대1)
- ▲송운경 (사회과학대1)
- ▲한보라 (사회과학대1)
- ▲김하나 (예술대 문창1)
- ▲이지현 (인문과학대1)
- ▲함민희 (인문과학대1)
- ▲신정환 (자연과학대1)

- 이상 10월 8일자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10월 15일자와 22일자는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제1329호)은 10월 29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지면안내

☞ 한탄강이 한탄하는 이유 4면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그러나 개발논리 앞에서 환경문제는 아직 관심 밖이다. 이에 개발논리와 환경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한탄강 댐건설 예정지를 대녀와 변화할

환경패러다임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 동양사상 탐문 살펴보기 5면

☞ 문화, 줄기에서 느낌으로 7면

보리수

착하게 살면 손해볼까?

김성철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우리는 삶이 고달플 때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푸념하며 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만다.

고대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 역시 '사기(史記)'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통탄한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도둑질로 살아가던 포악한 도둑은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리고 죽었으나, 인덕(仁德)을 쌓고 행실이 고결한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고 말았다. 도대체 하늘(天道)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이와 숙제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윤희와 인과응보의 이치에 비추어 볼 경우 도둑이 누린 행복은 그가 전생에 지었던 자신도 모르는 선업(善業)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둑은 그 현생(現生)에 저지른 악업(惡業)으로 인해 그 후생에는 한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도둑은 호의호식하고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과보(果報)를 모두 탕진해 버렸고, 악업을 지으며 살아감으로써 내생에 받게 될 괴로움의 부채만 잔뜩 짊어진 채 일생을 마감한 것이다. 저축에 비유하면, 예금한 돈도 모두 까먹고 갚아야 할 빚만 지며 일생을 살아간 꼴이다.

그러나 착하게 살 경우 이는 미래, 또는 내생에 내가 누릴 행복을 예금하는 것이 되고, 손해를 보는 경우 이는 과거, 또는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의 부채를 갚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자조적(自嘲的) 조건문을 '손해를 보더라도 언제나 착하게 살자'는 양보명령문으로 수정하여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자업자득(自業自得)하는 인과응보의 순환이 현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착하게 살면 이롭다'는 격언이 누구에게나 회자(膾炙)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교인의 도덕적 삶은 인과응보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함께 출발한다.

발전기금 ARS 7000-119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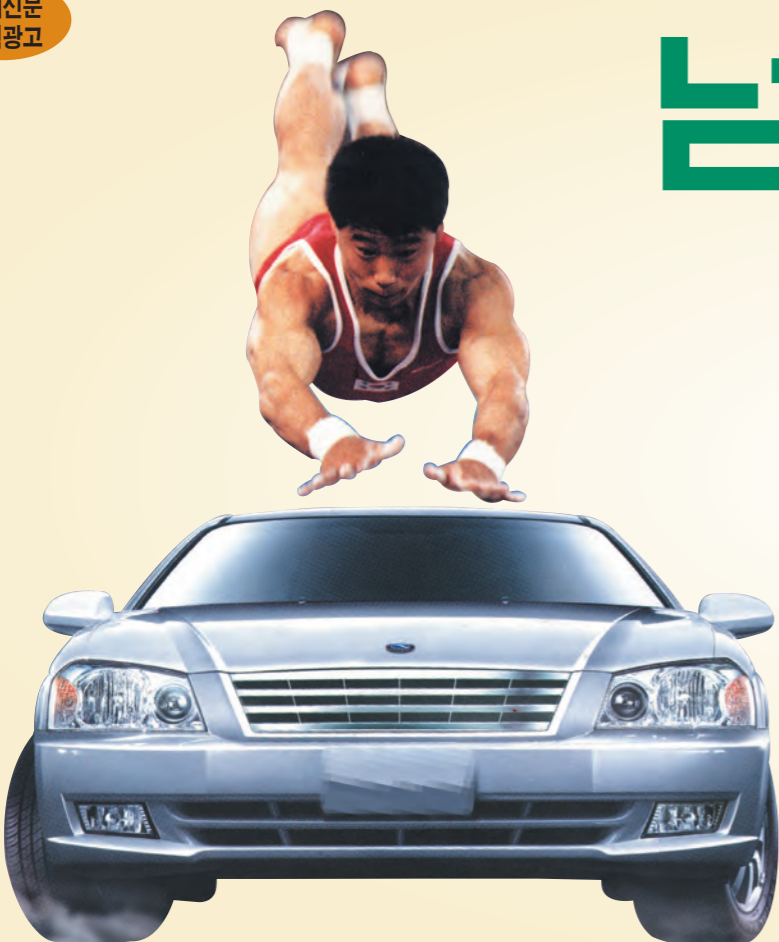
모집인원 : 경주캠퍼스 0명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 취재·사건 기자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②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 10월 11일(목) 오후 6시
선발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
선발일시 : 10월 11일(목) 오후 6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문의전화 : 054)770-2057, 2058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넘고 넘어서

옛날 옛적에...

선배들은 차 없는 널찍한 거리를 마음껏 누볐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빈틈없이 주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합니다

훗날에...

후배들은 차를 뛰어넘어 다녔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대신문사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시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 필요

한 해에 수백 명의 북한사람들이 북을 떠나 남으로 오고 있다. 지난해 남쪽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은 312명, 이 수는 올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여 올해 7월까지 300여 명이 남한 땅을 밟았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약 700명 내지 800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반공교육 유산 청산해야

우리는 수십 년 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일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북한사람들과 이웃으로 함께 사는 것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에 대해 막연한 환상만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와 언론은 "통일을 원하느냐" 혹은 "원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국민의 통일의식이 미약하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할 뿐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중요한 질문들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그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 통일된 사회를 준비하고 통일 이후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통일이 남북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통일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통일의 소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일상적인 토론의 소재가 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국가가 특정방식으로 이를 독점해 왔던 것과 관련된다. 북한 혹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가 이외의 부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폭력적으로 금지되었다. 국가는 지난 40여 년 간 '반공교육' 이외의 통일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 국가의 주도 하에 온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렬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이념교육을 받았다. 국가는 반공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수시로 동원했고, 학교와 사회는 기본적으로 병영체제를 모방했다. 수십 년 간 이루어진 반공교육으로 인해 사람들은 특정한 가치관과 태도를 학습했다. 반공교육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와 경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배척하고 인권을 안보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했으며 갈등상황은 폭력적 권위에 의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양산했다. 반공교육이 양산해 낸 이러한 폭력적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이다. 그 점에서 통일교육의 과제는 반공교육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위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통일교육은 분단, 전쟁, 냉전시대의 유산을 안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을 통해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의 폭력적 분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이향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교육을 통해 자문화중심주의의 편협한 잣대를 버리고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의미를 통해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을 통해 법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침해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 통일국가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 북한사람들에 대해 배운다는 한편, 다른 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통일된 사회의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다. 통일이 분단체제 하의 제반 모순을 해결하고 남북한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통일은 달성해야 할 열원이 아니라 피해야 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통일국가가 진정한 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주차문제, 획기적 조치 있어야

학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동국관 앞 통일광장이 주차장으로 변한 것은 오래된 일이고 이제는 다환관과 본관 앞은 물론 동아로까지 넘치는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일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내 곳곳이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신속도서관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다. 상황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수용능력을 3배 이상 초과하는 막대한 등록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엉뚱한 인도만 만드는 것은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접근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입차량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 출입·주차 비율이 가장 높은 교수, 직원의 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0부제를 5부제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스티커 발부나 공문발송에 그치지 않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하루 500원도 되지 않는 교수, 직원의 주차비를 인상하고 동아로, 다환관 앞 등은 전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측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할뿐 아니라 인근주차시설의 이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주차문제는 제도성 캠페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 우리는 개교 100주년을 앞둔 동아에서 자동차 홍수와 그로 인한 매캐한 매연에 시달리기보다는 젊음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고 여유있게 학내공간을 소유하면서 학문의 정취를 호흡할 권리가 있다. 학교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취업대란 따른 대책마련 시급

취업대란이라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미국의 테러참사 여파로 인해 사상 최고의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취업정보업체인 '잡링크'에서 발표한 '채용계획 설문조사' 결과 한국 중소기업들의 58%가 채용규모의 축소 혹은 채용시기 연기를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사태에 이르자 오는 10월까지 취업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본교 졸업생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집계된 연·고대 취업률도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캠퍼스라는 핸디캡까지 짊어지고 있는 본교 학생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현재 경쟁력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여념이 없다. IT직종 지방지를 겨냥한 학과 신설은 물론 소규모 학과의 명칭변경 그리고 복지타운 건설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교를 선택하고 이 수 과정을 마친 졸업자들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경미하기 이를 데 없다. 단지 채용설명회와 취업상담 등의 기본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은 사상 최대의 취업대란이라는 불운한 시기에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훌륭한 졸업생 배출은 학교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물론 본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학생들 각각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학교의 행정적 지원과 지역 일선 연계를 통해 취업을 돕는 학과 교수들의 노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국내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생의 관리는 학교발전에도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 줄 것임을 새기고 그들의 취업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와 우리의 대응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개선방법 담은 백서제작 등 자구노력 요구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중앙일보 주최 '2001년 전국 대학평가'가 지난날 24일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년제 대학 가운데 교육대·산업대와 신설대를 제외한 전국 1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고, 평가부문은 △교수연구(32%) △교육여건(22%) △재정(18%) △평판만족도(12%) △정보화(8%) △사회배려도(3%) △개성도(5%) 등 7개로 나뉘었다. 학문 분야별 평가는 96년 한차례 평가한 경제학·약학·정치외교학·건축학 등 4개 분야에 대해 5년만에 다시 실시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경영대학원 평가가 이뤄졌다. 종합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연구 여건 및 교수 연구 성과가 좋은 대학들이 대체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본교는 사립대학 재정 부문 8위와 평판만족도 19위, 학문분야별 평가 중 경제학과 종합 10위 등을 기록했을 뿐 종합순위는 20위 내에 들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 교수 확보율, 학생 당 강의실 면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교육여건 및 시설평가부문에서 본교의 협소한 학교부지와 이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이 여전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평가는 교수확보율을 비롯한 교수연구 비중이 32%를 차지하다보니 한림대, 인제대, 울산대 등과 같이 수도권에 대형종합병원을 가진 지방 대학들이 교수부문에 상위 10위안에 랭크됐다. 반면 본교처럼 수도권에 대형병원도 없고 오랜 역사로 인해 교수들의 평균연령이 높으며 인문사회계열 중심의 대학은 원천적으로 평가에서 하위로 처질 수밖에 없는 등의 모순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편, 중앙일보라는 공신력을 지닌 언론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평가가 입시철을 겨냥한 상업전략이 짙다는 점과 함께 일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가 전국의 대학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몰세우기'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울산대 김재홍 기획처장은 "대학의 사명을 크게 연구와 교육으로 볼 때 중앙일보 평가는 연구부문에 치우쳐 강의내용·교과과정 평가 등 교육부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부문의 점수를 합산하는 현재의 종합순위 산출방식을 개선해 인문사회·공



학 등 계열별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평가자체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대학평가를 통해 자기점점의 기회를 가지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21세기는 피할 수 없는 경쟁의 시대며 대학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경쟁력 확보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일보를

비롯한 평가기관들은 평가대상인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대학 교육의 수요자들이 평가 결과에서 변별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본교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발생하는 무시못할 대내외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자체평가와 함께 본교의 취약점과 개선방법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백서를 만드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성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박성관 이주석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2002학년도 전기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전공 2. 지원자격 3. 전형방법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5. 면접일시 및 장소 6. 제출서류 7. 합격자 발표 일시 8. 합격자 등록기간 및 장소 9. 기타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많은 기업에서 인재의 선발·배치에 적성검사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자기적성 파악 및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시종류: 리쿠르트 직무적성검사 2. 검시 일시 및 장소 3. 검시 소요시간: 90분 4. 대상: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6. 접수기간: 10월 8일(월) ~ 10월 11일(목) 7. 접수방법: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준비로 단체 또는 개인 접수

교육실습동의를서 접수 2002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02년 8월 졸업 및 2003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실습기간: 2002년 4. 3(월) ~ 4. 29(토) 4주간 3. 관련서류: 가. 교육실습협조 공문 나. 교육실습 동의서(소정양식) 4. 교육실습동의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1. 10. 15(월) ~ 11. 9(금) 5. 교부처: 사범대학 교학과 (소속대학교교학과 또는 홈페이지 사범대 게시판에서 출력가능) 6. 동의서 제출처: 소속교과과에서 관련서류 교부 후 모교나 교육실습협조학교 방문 후 연구주임선생님이나 교생담당선생님께 교육실습 공문과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동의서를 제출 후 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날인을 받음 후 실습동의서를 사범대학 교학과에 제출 후 2002년 4월에 교육실습 7. 제출처: 사범대학 교학과 8. 동대부종교 및 명성여종교는 개별적으로 동의서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희망지는 사범대학 교학과를 방문하여 상담할 것 9. 교육실습은 전반기(4월중)에만 실시하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실습동의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동약로

연행관습



“아, 저기 무슨 일이야?”
 “몰라, 경찰차가 왜 왔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본교 중문 앞에서 연휴기간 동안의 은신처로 향하던 입은희(수교4) 총학생회 학원 자주화 투쟁위원장(이하 학자투위원장)과 이난희(식물자원3) 생지대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 사복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처럼 한총련 대의원들이 명절·연휴 기간을 틈타 잡복한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수많은 대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금지’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발법자’가 되어 강제 연행되어 왔다.

“우리 대표자가 잘 잘못했다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폭력연행이러니...”

다음날 새벽, 중부경찰서 앞은 두 대표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본교 학생들의 목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이날 항의방문에 참여한 입은희 학자투위원장의 가족들은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밤 이난희 학생회장은 탈피서를 쓰고 풀려났고, 입은희 학자투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나와 서울 구치소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동약에 남은 수배자는 일곱 명.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각계에 통일 비랍이 부는 이 때 ‘반국가단체’라는 단어는 이제 의미조차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신의 자유가 억류된 수배자들에게 분단은 아직도 엄연한 현실이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수 차례 개정을 겪으면서도 곳곳이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허구적 논리를 유지해 왔다. 2001년, 그 망령은 여전히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인 악법 국가보안법. 2002년에는 더 이상 학생들이 대표자의 석방을 외치지 않아도 되길 기대해 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인간·자연 공존위한 사고전환 필요한 때

‘환경용량’ 열악한 국토 ... 자연 친화적 정책 추구해야

20세기는 환경의 무분별한 이용·개발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중심의 산업문명시대였다. 자연은 정부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지배하였다. 그 결과 환경 파괴 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고, 지구시스템도 변화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떠올랐다.

환경문제 성격따라 3가지로 구분

환경문제는 문제의 성격과 대응방안의 차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문제이고, 둘째는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이며, 셋째는 지구시스템의 변화 문제이다.

환경오염문제는 현대의 대량 생산·소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하여 야기된다. 발생한 오염물질이 물에 유입되면 수질오염, 땅에 스며들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 대기오염을 야기한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낙동강 폐물

오염사고, 연안해역의 적조현상, 폐기물 매립지의 악취 및 침출수 문제, 기름저장탱크 주변의 지하수 오염문제,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피해 등은 고도 압축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 환경오염문제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신설, 간척사업 등 국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자연환경의 훼손은 우리 삶의 쾌적성을 손상할 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소멸 등 생태계의 파괴를 초

래한다. 최근 많은 논란에 휩싸인 동강댐 건설문제, 새만금간척사업, 용인 신도시 난개발 문제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조밀하며 강우량이 한 계절에 편중하는 등 열악한 환경용량으로 인해 환경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데 원천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규제 놓고 국가간 갈등

오존층의 파괴, 지구기온의 상승,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환경시스템의 변화 현상은 인류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

- ▶ 댐 건설 예정지에서 내려 다본 한탄강의 모습. 멀리 할벗은 종자산이 보인다.
- ▶ 3천만년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절경인 비둘기낭. 이곳도 댐이 지어지면 없어지고 만다.
- ▶ 한탄강 네트워크 이우형 총무팀장이 수물예정지를 가리키며 댐 건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윤미 기자

한탄강댐 건설 예정지를 찾아서

철지난 댐건설에 한탄하는 한탄강



“댐을 세우면 생기는 호수에 수상공원을 운영한다고?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사격장 근처에서 뱃놀이를 한다 말이야?”

마을 주변을 둘러싼 아트막한 산과 그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 그러나 정면으로 보이는 할벗은 산이 유독 눈에 띈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락터 사격장 안에 위치한 종자산이다. 폭력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할벗다 못해 반질반질해 보인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탄강에 댐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하류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계속된 경기 북부의 물난리 피해를 막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정부의 댐 건설 강행계획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맞서 ‘제2의 동강댐 논란’으로 반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탄강을 찾았다. 연휴를 맞아 인근 다락터 사격장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인지 한탄강댐 건설 예정지는 여느 한적한 농촌 마을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강줄기를 따라 이어진 도로에는 부대와 점문소가 자주 눈에 띄었다. 한탄강 네트워크 이철우 사무처장은 “이 지역은 사격장을 비롯해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며 국방부가 건교부의 댐 건설을 조건부로 합의해 준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댐이 건설돼 다락터 사격장의 일부가 물에 잠기면 사격장에 깔려있는 엄청난 양의 화약, 분진, 납 등이 그대로 강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그럴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자원공사가 발표한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서에 사격장 문제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댐 반대 국민행동은 “정부가 댐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댐의 효과는 과장하고 피해는 축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은 중금속, 탄피만이 아니다. 화석연, 고석정 등 한탄강 근처의 이름난 절경들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탄강의 비경 중 하나라는 비둘기낭은 좁은 비포장도로를 지나 바위 틈 사이로 난 길을 비집고 들어가 찾을 수 있었다. 금새라도 물 속으로 쏟아질 것같이 앞으로 기운 채 병풍처럼 이어진 절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시화호, 새만금 간척지 건설 논란처럼 환경문제에 관해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날 환경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댐 건설 논쟁으로 한탄강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탄강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지자

별국가들은 국익을 앞세워 무임승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환경규제와 선진국의 환경보호 명분의 무역규제조치 등은 선·후진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의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탈퇴 결정에 따른 국가 간의 대립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국제사회질서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공생하는 삶을 영위한다는 자연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원로대사께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동체이면(同體異面)이라 실과하신 바 있다. 우리는 자연 그 자체의 가치와 존재이유를 인정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며 21세기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김인환
 계명대 환경학부 교수

비둘기낭은 3천만년전 강원도 평강의 화산이 분출한 후 용암이 흘러내려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생겨 커 커이 층을 이루고 있다. 한탄강 네트워크 이우형 총무팀장은 비둘기낭의 절경을 가리키면서 “한탄강 유역 대부분이 현무암층으로 구성돼 있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댐을 세우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수자원공사는 본래 기반암 위에 댐을 세우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안의 현무암 층을 그대로 놔둔 채 하천 바닥에만 댐을 세운다고 얼마나 수압을 견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0년대 말 두차례나 무너져 홍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철거된 연천댐도 현무암과의 경계면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했기 때문이다.

한탄강의 수려한 풍경을 확연히 볼 수 있다는 할미고개에서 만난 장종진(35)씨는 “어린 시절 뛰놀던 고개에 물속에 묻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한탄강 댐 반대’라는 글씨가 적힌 플래카드 20여개를 만들어왔다고 한다.

이철우 사무처장은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임진강 유역의 남북 공동 수계조사를 주목하고 있다. 임진강을 중심으로 수해정책을 세우는 것이 매년 되풀이된 경기북부의 물난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강폭이 임진강의 절반도 되지 않는 한탄강에 댐을 세우는 것은 홍수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때 인위적으로 물을 관리하려고 했던 국가들이 예전에 세웠던 댐을 철거하고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세계은행(IBRD)이 지난 90년 이후 ‘댐건설을 위한 차관’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현재 댐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다.

이우형 총무팀장은 “이번 논란이 그동안 댐건설 위주로 펼쳐져온 정부의 물관리 대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매년 되풀이된 댐건설 논쟁을 한탄강에서 종지부를 찍게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진정한 대안없이 동양 사상을 논하지 말라

대안담론으로서 논의 활발하나 탁상공론에 그쳐

지금으로부터 십 수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그 때, 한 저명한 선생으로부터 "앞으로 동양 문화, 동양 사상이 세계 문화를 주도할 시기가 진짜로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주인공은 여전히 서양인일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목전의 사실인 동양 사상 불 현상을 보고 싶노라면 문득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동양 사상 대안 담론들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있을라치면 어느새 마음이 답답해진다.

동양 사상 담론의 허구성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동양 담론은 거의 동시에 활발히 논의되었다던 서구의 포스트(post-) 담론들의 영향 아래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IMF 체제 이후 한국 사회나 국가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분분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용옥의 '노자와 긴세기'와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동양 사상 붐이 형성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한편 이 양자는 동양 사상 담론이 공자·노자 담론으로 구체화되는 신호탄이자 동양 사상의 대안적 담론이 활발하게 생겨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는 정작 죽어야 할 공자를 거기서 보지 못했고, 노자 대신에 김용옥만 보았을 뿐이다. 비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더욱이 김용옥에게서는 권위에 대한 부정,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 고정 관념의 극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눈이 나쁘고 내 이해력의 한계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용옥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했다.

동양 사상 대안 담론 논의가 지적 성찰의 과정으로 최근 국내 학계 전반에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양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유령적 허구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 그렇고, 서양문명이 초래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동양을 상징하는 태도가 갖는 위험성을 날림이 지적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의 공자·노자 담론이 공자는 죽이고 노자는 살리고 식으로 전개되는데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차여서 더욱더 반갑다.

차제에 동양 사상 대안 담론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하자.

후자의 말대로, 서양 문명의 위기를 모두 기술중심주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양 사상 대안 담론이 공허함을 자초하는 길이다. 자본주의의 위함이 단지 기술에서만 유발되는 것이겠는가? 또 한 가지, 노자를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거치면서 형성된 '해체론'과 접목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시도들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서양의 '해체론'은 형이상학적 텍스트들을 근원부터 꼼꼼하게 독해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성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 방안 필요

이제 동양 사상 붐을 동양의 고전적 텍스트들을 꼼꼼하게 독해하는대로 이끌 구체적 방안을 생각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섣부른 대안 담론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동양 사상이 현실적 모순과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거론되는 대안 담론은 진정한 현실 변혁의 힘이 될 수 없다. 동양 붐에 동양인이 주인 되기를 기원하며!

유 훈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밀

전세계 인류가 주식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식물인 밀은 소맥이라고도 불리며, 벼식물과 같이 화분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초여름에 거두는 월년초로 세계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 또한 지구의 남부 양반구를 통해서 일년 중 어느 곳에서도 수확이 가능하다.

밀식물의 학명은 쓰인새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통밀의 경우 Triticum aestivum, L. 또는 Triticum vulgare, VILL. 이라고 한다. 밀식물속의 Genome은 A·B·D·G의 4종류가 있고 각기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Genome 조성의 차이에 의하여 같은 종들을 계로 통합하여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구상 인류의 주 먹거리로 밀식물의 발생지는 현재 가장 중요한 품종인 빵밀의 발생지 카스피해 남안을 중심으로 한 부근 지역으로서, 재배연대는 BC 60~50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밀식물 기구기는 약 1만 5천년 전부터 실시되었다는 설도 있으며, 이러한 발생지로부터 서쪽으로 고대 인류의 이동과 병행하여 유럽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전해졌다.

또한 BC 30년경에는 유럽전역과 북아프리카에 걸쳐 대단히 넓은 지역에서 널리 재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지방에서는 중세까지는 보리보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적었고 금세기기에 이르러 주식으로서 으뜸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노르웨이지역에서는 12세기 직전에 전파되었으며 신대륙지역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서인도 지역에는 15세기 말경에 전파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1602~1618년경부터 밀식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는 영국으로부터 개척 이민자들에 의해 18세기경에 도입되었다. 동양지역에는 고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인도지역에 들어오고, 여기에서 미얀마를 거쳐 중국의 운남지역과 사천지역을 경유하여 중국지방의 북부황토지대에 전해졌다고 한다. 중국북부 지방에서의 밀식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0년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밀식물이 전래된 시기는 4세기경으로 추측되며,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밀식물의 단백질은 부질(Gluten)이 주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빵을 제조하기에 적합하고 식미와 비타민B 등의 영양분도 풍부하고 우수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의 주식으로 되어 있다.

마카로니, 국수, 만두, 파자, 풀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 통밀은 된장, 간장, 누룩 등의 양조용이나 요리용 및 공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밀기울은 매우 중요한 가축사료로 이용되며 밀짚은 보리짚과 같이 가공품, 오양깃, 맥고자, 유리병 싸개, 펄프 등에 이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밀식물의 소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90%이상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각종 용도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우리밀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자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구승희 교수의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서평

윤리학적 시각으로 환경문제 재조명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의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는 그가 95년에 '에코필로소피'를 출간하여 국내에서 생태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철학적 담론의 길을 트지 6년 만에 다시 내놓는 회심의 역작이다. 구 교수가 이 저서를 통하여 생태학적 형이상학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윤리학의 영역으로 체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학계에 있어 넓은 의미의 환경철학(Environmental Philosophy)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유사한 용어들로 쓰여져 왔다. 환경철학, 또는 생태철학으로 혹은 환경윤리, 생태윤리라고도 하는 등 쓰는 사람에 따라 용어가 다르고 따라서 설(說) 또한 분분했다.

개념과 이로(理路)의 혼란시대였던 것이다. 그래서 구 교수는 이 책을 통하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제안한다. 생태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의 차원으로, 그리고 환경은 윤리학의 체계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론들을 정립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는 생태학적 담론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식론적 기초에 근거해 있다.

자연보호, 자연보존, 토양·해양·대기의 오염, 인구문제, 생물과 그 서식지 보존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문제 삼는다면 환경윤리가 타당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의 형이상학적 배후, 인간의 자연관 세계관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생태철학이 되어야 한다.

환경윤리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윤리학적 원칙을 적용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 생태철학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연관, 혹은 생태학적 형이상학의 틀을 제시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접하면서 생태철학에 관한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읽었다. 환경문제는 그간 일상적으로 논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태에 관한 한, 그것도 철학적으로 천착할 기회는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성사에서 철학은 어떤 형태가 되었건 이성중심주의적 틀을 넘어서지 못했고, 나아가 형이상학은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생태의 문제는 자연적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형이상학을 정초할 수 있을까.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구 교수는 우선 전통철학의 반생태학적 전제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여기에는 유

태·기독교적 세계관이 철학도 포함된다. 그리고 땅의 윤리도 귀중한 요소다. 땅이라는 생물공동체에 생물권을 배려할 의무를 요청하고, 레오폴드의 말을 인용, 어떤 것이 생물공동체 내에서 스스로를 보전 영속시키고 존재의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하는 가치관의 정립을 요한다.

그리고 구 교수는 생태철학의 확립을 위하여 응용윤리학적 접근, 메타윤리학적 접근, 자연형이상학의 시도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교수의 생태철학은 무수한 논의의 나열 같은 감을 씻을 수 없는 구석이 있다. 아마도 생태학적 자연형이상학을 어쩔 수 없이 전통철학의 범주 내에서 논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리라.

이 책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경윤리다. 여기서 그는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근거와 미래세대의 도덕적 권리를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의 문제는 '지금'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도덕적 문제라는 점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송 제 운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본교 BK21 'N세대 이미지 문화' 세미나

제 목 : 브릿지, 섹슈얼리티, 수동적 혁명
- N세대 영상 이미지 읽기와 만들기
일 시 : 2001년 10월 13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
주 최 : 본교 BK21 핵심분야 'N세대 이미지 문화 연구' 인력양성팀
주 관 : 교육부, 동국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공동

- ▶ **섹슈얼리티 연구팀**
 - 한국 N세대의 성인 저패니메이션 수용양상 연구 : '무사 쉼베이' 중심으로 - 맹 수 진 (대학원 연극영화학 박사과정)
 - 영화 속 트라우마(Trauma)를 통한 인물 관계 분석 - 배 경 민 (대학원 연극영화학 석사과정)
 - N세대 이미지 섹슈얼리티 수용 양상 연구 : 영화 '청춘' '눈물'을 중심으로 - 한 세 희 (대학원 연극영화학 석사과정)
 - 토론 - 김 윤 아 (성공회대 강사)
- ▶ **영상이미지 교육 연구팀**
 - 영상색채 스타일에 대한 N세대의 의식성향 고찰 - 김 중 국 (대학원 연극영화학 박사과정)
 - 토론 - 이 동 연 (문화평론가)
- ▶ **남북한 영상 이미지 비교 연구팀**
 - 김정일 시기 영화 창작방법에서의 수동적 혁명 : 가족영화의 세대갈등을 중심으로 - 이 명 자 (대학원 박사과정)
 - 자본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 : 남북한 스타 비교 연구 - 최 연 용 (대학원 석사과정)
 - 토론 - 서 재 진 (통일연구원 연구원)

희귀병, 평범한 사람들의 특이한 병

윌리엄스증후군·기면발작증 등 ... 마땅한 치료법 없어 전전공공

옛날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뾰족하고 큰 귀의 꼬마요정들이 실존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이 있다. 모델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윌리엄스 증후군'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윌리엄스 증후군'은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정신적 특이사항을 보이는 희귀병 중 하나이다. 이는 두 개의 7번 염색체 중 엘라스틴을 만드는 유전자 결손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인에 비해 아이큐가 낮고,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반면 언어구사능력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천재적 음악가 모차르트가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희귀병은 유전적, 환경적, 정신적 요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때로는 신체적 변화의 증상만이 일어나기도 하나 정신장애와 신체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희귀병에는 30~40대 여성이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고 얼굴모양이 달처럼 둥글게 변하는 '쿠싱증후군'과 얼굴이 좁고 길어지며 치아가 돌출되는 '말관증후군' 등이 있다.

말관증후군은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고 이 병의 환자들은 통깨이 터져 들인사과 이 병의 환자들은 통깨이 터져 들인사과 이집트의 이기해 나왕이 말관증후군 환자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기면발작증'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잠들어 버리는 병이다. 기면발작증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형편이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이 있다면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치료약이 지속적으로 개발중이라는 하나 부작용의 위험이 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헌팅턴 무도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로 춤을 추는 듯한 증상을 보이는 '무도증'과 치매가 결합해 발병한

다. 이는 30~60세 경부터 스스로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얼굴과 손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행동장애가 일어나기도 하며 발병 후 17년 뒤에 대개 사망한다.

이 외에도 분노발작으로 인해 욕을 하고 병소의 위치를 파악하면 수술치료가 가능하다.

말관증후군은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고 이 병의 환자들은 통깨이 터져 들인사과 이집트의 이기해 나왕이 말관증후군 환자였다는 설이 있다. 또한 '기면발작증'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잠들어 버리는 병이다. 기면발작증 환자들은 이러한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형편이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이 있다면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치료약이 지속적으로 개발중이라는 하나 부작용의 위험이 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헌팅턴 무도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로 춤을 추는 듯한 증상을 보이는 '무도증'과 치매가 결합해 발병한

다. 이는 30~60세 경부터 스스로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얼굴과 손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행동장애가 일어나기도 하며 발병 후 17년 뒤에 대개 사망한다.

고수동정

- ▲김상수(법학)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학술연구집회 참석차 일본 나고야 방문.
- ▲손 성(법학)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북경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위해 참석 예정.
- ▲한상범(법학)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01 한·일 공동 심포지움'에 참가.
- ▲곽노성(국제통상학)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WTO 농업 협상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 방문.
- ▲이승영(국제통상학)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
- ▲최영균(광고학)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랜싱에 연구차 방문.
- ▲박정국(화학공학)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코푸에서 열리는 '일본 생물 공학회' 참가.
- ▲박준영(산업공학)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미국 미시간 대학교 가상현실연구소를 방문해 국제 공동연구 협의.
- ▲민병룡(영화영상학)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아·태 영화제' 국제 심사위원으로 참석.
- ▲이영기(경제학)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한·불 경제포럼'에 프랑스 의무성 초청으로 참가.



내똥는 걸음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뚜렷한 언론관으로 생명력있는 글 쓸 터

고 변화시키는 힘을 갖기 때문에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끊임 없이 투쟁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올바른 언론관을 갖는다는 것. 수습기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한 수습학교에서 2학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개의 강연을 들으며 타 대학 수습기자들과 학생기자로서 지녀야 할 언론관에 대해 고민했다. '기사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학생 기자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 때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질문들이 정기작으로서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지금 어렵게 이해된다. 수습기자 신고식을 할 때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화해내는 생명력 있는 글'을 쓰겠다고 외쳤다. 그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형식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부 한 부 신문은 만들 때마다 이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 현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열린 마음을 갖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는 학생기자가 되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치열하게 고민하며 의식있는 눈 키워

이다. 사회부 수습기자로 생활하면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의식적인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판매 부수가 최고라는 이유로 조선일보를 '일등' 신문으로 생각했던 내가 이전 언론개혁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신문사 속의 나'라는 존재감이 커지고 역할이 많아지면서 고민의 방향들은 기사에 대한 것이나 기자로서의 모습 쪽으로 흘러갔다. 일주 일동안 공돌여 만든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힘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왔지만 내가 쓴 기사를 보는 독자들에게 대한 생각이 부족했음을 깨닫는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지는 않지만 3만 독자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동대신문사 기자인 나는 분명 언론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쓴 기사를 공감하고 그 속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언론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없었지만 올바른 생각을 전하는 언론인으로서 끊임 없이 고민할 것을 다짐해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차갑고 따듯한 글 쓰며 사람 생각하는 기자로

지난 9월, 을지로3가 역에서 휠체어를 탄 20대 후반 여성이 장애인용 리프트를 타고 있었다. 곁에서는 그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어느 남성이 휠체어가 리프트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이었다.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 그들이 계단 너머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당시 내가 속한 사회부는 장애인 불평등 기사를 기획하고 있던 터라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순간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송윤경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불평등에 관한 기획을 준비중인데 잠깐 저와 장애인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로 지내면서 수배 생활중인 사회운동가부터 시종아귀의 나물 파는 할머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기자가 아니었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사람들을 만나 저마다 의견을 듣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이전 커다란 기쁨이 되었다. 특히 취재원의 말이나 생각을 통해 들을 것 신선함을 접할 때 세상 속 희망을 직접 접하는 기쁨이 들곤 한다. 언제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내게 취재처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시간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해준 배움의 시간이었던 셈이다. 사람들은 기자가 차가운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자야말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기자가 움직이는 현장 속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신문 속에서 궁극적으로 담아내려 하는 것 또한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 속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을 위한 기사를 쓰고 그러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공부해온 6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났다. "차갑고 따듯한 글을 쓰려!" 대학신문 기자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처럼 논리적인 비판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는 기자가 되는 것. 남은 2년 반 동안 내가 이뤄나갈 새로운 도전과제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신문과 맺은 인연 삶 전환하는 기회되어



'사람에게는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누구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큰 '세 번의 기회'. 6개월 전 그 중 한번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 동대신문사와 맺은 인연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일기에 나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신문. 이전의 난 신문과 거리가 멀었다. 시시각각 터지는 사건에 관심 없음을 물론, 딱딱한 문체의 기사가 지루해 신문보는 일도 드물었다. 하지만 어느새 신문을 뒤적거리며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사 내용에 허접이

있지는 않나 살펴보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신문에 갖게 된 관심은 한정되어 있던 내 시선을 우리 사회 곳곳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 한번의 '기회'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였다. 사람, 학내 출입처, 집회 현장, 통일대 축전 같은 행사에서 그리고 독립예술제나 인권문화제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그들을 통해 진정한 삶을 배우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깨우쳐 갔다. 이 역시 동대신문사라는 '기회'가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소중한 체험이었다. 변화. 6개월 여의 시간동안 수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많은 경험을 통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올바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타인을 의식하고 소극적이던 성격도 달라졌다. 또한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수습기자로 지내는 동안 그 '기회'가 준 또 다른 선물이었다.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수습기자 생활 동안 얻게 된 모든 것들은 그만큼 그 '기회'가 지닌 의미와 가치가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기자가 된 지금, 나에게 찾아 온 그 '기회'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노력을 담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기 마련이다. 신문에 들어오기 전이나 역시 스스로 방관자가 되길 원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언론의 기사거리라 불려왔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으로 대학생활을 하다보니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사회와 관계 맺기의 해결책으로 신문사를 택했다.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사건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기자가 되어보자는 생각이였다. 신문사 생활 초기에는 주로 신문사 안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현장에 언제 투입되는지 골똘했지만 막상 취재 차 현장에 갔을 때는 당혹스러웠다. 취재원의 말은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됐고 행사의 경우 '순간'을 놓치면 끝이었다. 그 치열한 현장감은 끝없는 회의, 정신 없는 취재, 모두가 예민해지는 기사



독자와 하나되는 현장 속 기자될 것

마감이 되풀이되는 신문사 안에서도 항상 존재했다. 신문사 생활은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기자로서 해야 할 몫을 하나씩 제시해 주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을 돌아보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5·1 노동절 행사에서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목청을 높였던 노동자와 이야기하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가슴깊이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또

이러한 현장의 가르침들은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다. 방관자의 여유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난 6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자는 단지 사건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대학신문기자라면 독자의 문제에 대해 그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언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정기자이다. 지난 6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현장에 서서, 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하나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굴레 벗어나 한계에 도전한다



자기 몸의 몇 백 배나 뛰어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버릇을 찾았다. 그 몸을 잡아 병수에 넣은 후, 투명한 마개로 병 입구를 덮어 씌웠다. 높은 병 밖으로 나오기 위해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용수철 같이 튀어 오르기를 반복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버릇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병 입구를 틀어막았던 마개를 치워도 더 이상 튀어 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더욱이 병 속에서 깨내 주어도 도망은커녕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지내 온 6개월 간의 수습 기간은 병 속의 삶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린 버릇과 같은 모습이었는지 모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출입처를 돌면서 취재하고, 가십 기사 하나를 붙잡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신문 조판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잠을 청하기 위해 화장실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철저하게 나는 신문에 둘러 싸여 나 자신의 굴레에 묶인 채 버릇의 삶을 살아왔던 셈이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될 수 없어! 감히 네 주체에...'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던 부정적인 나의 자아를 훌쩍 뛰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긍정적인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이제는 병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 나는 더 이상 병 안에 갇힌 버릇이 아니다. '정기자'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취재 수첩 하나만 들고 있다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신문을 펼쳐 들고 있을 3만 독자를 그려본다. 그들은 분명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두려울 것이 없다. 내 두 손에는 취재수첩이 놓여 있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단단한 각오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 나는 일찌감치 버릇이길 포기한다. 버릇보다 수백 배 높게 뛰어오를 수 있는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안일에서 이탈하는 다부진 마음으로



'오직 하나의 욕망에 평생을 걸어야 한다. 선택은 다른 것을 버린다는 것이다. 선택된 욕망에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규정할 수 있다.' 난 가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후회의 의미일지도 모르다. 한치의 변명도 비켜섬도 없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져야 하는 신문사 생활. 이 쓴맛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포기했다. 그러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초조함만이 내가 서있는 곳의 위치를 말해 주고 있다. 이탈자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대학생의 계도를 벗어난 이탈자의 사명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이탈자라 일컫는 것은 너무 건방진 생각이다. 이탈자의 아주 가까운 곳에 낙오자가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진보없이 도태된 자. 나의 내태함과 안일함은 지꾸만 낙오자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다. 이탈할 것인가, 낙오될 것인가. 그 대답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함민희 기자 lilth@mail.dongguk.ac.kr

내주어야 한다는 다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신문사를 떠나야 한다는 결의를 필요로 한다. 나는 학생 기자에 대한 생활 전부를 걸었다. 언제라도 나를 내리치고 쫓아낼 각오가 되어있다. 이런 각오는 나의 붓대가 세상을 바랄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리라. 매일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리고 나의 다부진 욕망이 깨어있고, 그 선택을 관철 시켜나갈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굴복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결국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비록 내가 선택한 욕망으로 이탈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선택을 지켜 가는 현실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노라고 나의 대학 생활을 자랑스럽게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함민희 기자 lilth@mail.dongguk.ac.kr

끝나지 않은 게임 희생타 될 각오



'희희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주자 만루 상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인가. 모든 스포츠가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야구 또한 그렇다. '희희 말 공격이 시작된다.' 신문사 수습생활 6개월은 실전경기도 연습경기에 중점을 둔 훈련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경기에 익숙하지 않다. 사실 연습생으로 실전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능력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가며 훈련은 계속된다. 간의 한 거둬둔 훈련의 결실은 선수들 간의 조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는 특별 훈련을 마감하고 새로운 훈련에 들어간다. 어느새 신문사 입사원서를 낼 때의 자신감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취재원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가십 기사를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느낀 자괴감은 아웃 카운트를 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웃 카운트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 안정된 타격 자세로 바꿔야 한다. '타석에 선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신인선수 '신정환'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내걸고 야구 방방이를 잡았다. 당분간 빈번히 헛스윙을 하겠지만 아치훈련을 그림 날만 고대하면서 훈련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대학기자의 위치에서 규칙을 범하지 않고 더 이상 유인구에 속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편견과 야입에 빠지지 않는 여파자가 되기로 다짐한다. 기자는 타인 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동약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소중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중개자'이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번 시작된 게임은 끝을 봐야 한다. 이미 지고 만 경기에는 더 이상 팬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한 승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3만 독자 앞에서 '정기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희생타를 칠 각오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매체비평

신문편

굿데이

“더 세계, 더 진하게, 더 가볍게 또 하나의 판박이로 탄생하다”



지난 달 21일 창간한 스포츠 신문 'goodday'.

4번째이나 스포츠 신문을 창간한 진기록의 이상우 사장 취임. HOT를 떠올리게 하는 인터넷 도메인 www.hot.co.kr. 첫 시험판 머릿글을 탤런트 이태란의 섹스 비디오 유무로 설정. 기존 스포츠 신문의 경력 기자 스카웃. 깜짝하게 음란스러운 섹스 관련 기사들. 이상은 2001년 9월 21일 “좋은 신문, 좋은 하루”를 슬로건으로 내건 스포츠 신문 ‘굿데이’의 간담한 이력이다. 유별난 이력은 아니다. 바로 위 선배 격인 ‘스포츠 투데이’의 행보와 별 다를 바가 없다. 틈새 시장을 찾고, 스포츠 기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굿데이’였다. 예쁜 옷을 입히고, 독자의 눈을 낚아챌 내용을 전면에도 등장시키고, 그 밖의 내용들은 적당히 버무리는 관행에 입각한 제작을 행

한다. ‘굿데이’도 그로부터 비껴가지 않았다. 4번의 창간 경험을 가진 사장과 타 스포츠 신문으로부터 스카웃한 경력 기자들이 울방울방울 맺어 있는 ‘굿데이’가 그 전략을 벗어나 알찬 내용으로 승부할 동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스포츠 신문과 크게 달라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굿데이’가 애초부터 지켰을 수도 있다. 이미 스포츠 신문으로부터 얻을 즐거움에 익숙해 있는 독자들을 놀라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독자를 놀라게 해서 얻을 이익이 많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공약을 통해 명분을 세우되 실제로는 판박이를 추구하는 이중 플레이를 즐겼다고 하면 ‘굿데이’는 억울한 표정을 지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화에 의식 담아 즐거움에서 느낌으로

잘생기지 않은 외모로 막춤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나 완전히 새웠어’라고 두 팔을 파닥거리는 열기 가수 싸이. 우리가 그에게 그토록 열광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위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침없는 용기와 솔직한 때문이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싸이와 같은 반지성적 삼류 문화의 붐을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반문화를 통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심리가 깔려있다. 전통적인 가치 규범과 정의가 실종되는 현실에 대해 암묵적 동조적식을 가지는 셈이다.

문화, 진보적 시각으로 창조적 실험으로 현 사회를 투영하라

유쾌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항문화의 여러 채널들을 자주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낯선 코드가 우리 사회와 불안한 동거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인디’ 혹은 ‘취향 하위문화’로 구분되는 DIY 티셔츠 패션 행동가 집단과 스케이팅보드족 커뮤니티인 플래틴, 흥대 인디 펑크 레이블인 문화사기단들을 아주 가깝게 만난다. 그들은 모두 안티 브랜드·상업주의를 맹렬한 어조로 표방한다. 동시에 문화가 의식이나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이 사회를 자동적이고 무감한 상태로 바라보는 죽어버린 의식은 다양한 문화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 보다 놀랍고 즐거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시각에서 창조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대항문화의 도전들이 환영받고 있다. 우리 사회와 이들의 영동한 만남은 불안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벌써부터 기분 좋은 ‘동거’는 시작되고 있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인권문화제 하얀햇살 2001

희망의 싹 틔워가는 ‘참된 인권’ 위한 축제



“해고노동자부터 비정규직, 여성, 장애노동자까지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삶의 권리를 당당한 목소리에 담아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난 달 26일, ‘인권문화제 하얀햇살 2001’이 열린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합성과 노래소리로 가득했다. “정당한 인권”에 대한 불만을 던지며 시작된 인권문화제는 지난 98년부터 4년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인권,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해’란 주제로 사상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관해 끊임없는 관심을 내비쳤다.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한 인권문화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했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민중가수의 공연 그리고 퍼포먼스 등 예년보다 다양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 것이다. 특히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은 그것이 결코 몇몇의 특정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역설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번 인권문화제는 인권의 개념을 사상의 자유보다 생존을 위한 권리, 즉 삶 전반에 관한 권리로 확장시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둠 속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햇살처럼 소외된 이들을 위해 반인권과 불평등 문제를 짚어 온 인권문화제 하얀햇살, 앞으로도 음지에 햇살을 뿌리며 ‘참된 인권’을 찾는 문화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티셔츠 행동당

숨은 권력 ‘브랜드’ 이제 너를 체포한다

브랜드 제일주의에 판지 거는 사람들, 티셔츠행동당. 이름부터 심상찮은 이들은 기업이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 23이나 리바이스의 501과 같은 숫자를 독점하는 것이나 거리에 넘쳐나는 UCLA, NIKE 등 미국 브랜드의 패셔너블주의에 반기를 들어 결성되었다. ‘진통’과 ‘짜통’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브랜드에 종속된 우리 사회의 허상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 것이다. 서로를 성별이나 학력의 구분 없는 ‘원인’, ‘700미쓰리’, ‘우주정자’ 등의 별명으로 부르는 티셔츠행동당은 ‘찌라시 보다 강한 미디어’로서의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생산방식부터 차별화 했다. 먼저 못난이 인형, 바퀴벌레처럼 생활 속의 이야기와 검열반대, 안티조선운동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디자인의 기본도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벅스나 FUBU 등 일부 브랜드를 풍자하고 부패정치인 증정용 ‘할복 도움 티

셔츠’처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은 기발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다. 또한 모든 티셔츠의 디자인을 온라인(www.theT.co.kr) 토론에 붙여 선정하고, 한 디자인당 100여벌 안팎의 소량만을 생산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티셔츠행동당의 이러한 판매전략이다. 이는 티셔츠행동당 자체가 또 하나의 브랜드로 거대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티셔츠행동당의 왕 언니는 “브랜드 마케팅은 문화 확립화를 조장하는 숨은 권력”이라며 “문화란 다양한 각도에서 통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티셔츠행동당은 시인 이상과 이주노동자, 취업난을 주제로 티셔츠를 개발 중이며, 소수문화와 하위문화를 위한 웹진 ‘문화전선’도 준비하고 있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랩퍼 디지(DeeGie)

“부당한 일에는 ‘NO’ 라고 확실하게 말해야죠”

‘키가 크면 심답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180cm가 넘는 장신 랩퍼 디지(DeeGie)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심겁게 한다. 조선일보와 일본의 왜곡교과서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디지는 당돌하면서도 당찬 N세대 가수였다. ‘Insane DeeGie(광란의 디지)’란 앨범으로 가요계에 갓 입문한 신인가수 디지는 어느 대중가수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사랑과 이별 이야기만을 예쁜 언어로 포장해 표현하는 요즘의 가요계에서 랩퍼 디지는 무능한 국회의원을 욕하고 안티조선을 부르짖는 등 색다른(?) 이야기로 노래로 읊었다. 음반에 수록된 18곡 모두 현 사회의 문제점을 원색적이고 과격한 어투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조선일보사와 일본대사관 앞에서 케릴라 콘서트를 열어 자신의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렸다. “과거를 잊으면 현재가 없고 또 현재가 없으면 당연히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부당한 일에는 ‘NO’ 라고 말할 것뿐이에요.” 험렁한 티셔츠에 합합바지를 걸쳐 입은 디지의 걸모습은 대학로나 명동 거리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래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회를 적시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는 디지의 속내까지 그들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는 결코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한 배짱있는 젊은이일 뿐이다. “저 같은 양아치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회라면 정말 문제되지 않아요?”라며 자신 만만하게 되묻는 디지. 바로 그런 그의 모습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반복

▲NBA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지난 2일 워싱턴 워저즈의 연습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뒤로 한 채 코트를 떠났던 조던. 그러나 그는 “농구가 너무 하고 싶다”며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복귀를 선언했다. 은퇴를 반복하면서까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코트에 복귀해 농구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과시한 것이다. ▲교과서 왜곡사건과 야스쿠니 신사참

배 문제로 한·일 양국의 관계는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조속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도 경제문제와 미국테러 등의 국제정세변화에 맞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지 모른다.

▲오는 15일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한 일본 총리의 방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왜곡 역사교과서와 야스

쿠니 신사 참배,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쉽게 납득될 수 없다. ▲조던의 컴백으로 예전의 NBA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 거라 미국은 뜰 때 있다. 스타의 번복에 대한 배신감보다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허용한 정부와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에게 무슨 댓가가 따르는 것일까. 쿠파열도의 풍조조련조

차 내년에는 더 많은 보상을 제시한 일본에게 되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시도되는 정부의 태도. 굳이 60년대 한일협정을 들춰내지 않을 지라도 국민정서를 무시한 ‘번복’이 주는 아픔에 적어도 조던의 그것과는 다른 쓸쓸함이 남는다. 이소라 여론부장 choya@mail.dongguk.ac.kr

소나기

고개속인 우리말



△어디 고개 속인 것이 우리말 뿐인가?!
 △영어가 너무 중요해서 세계화 시대라서
 피할 수 없다.
 △이론 우리말이 어느새 경년기라나...
 △우리말을 세계화 시키시다.
 △우리말로 공용어가 될 수 있다.
 △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바르지
 못한 사용을 한다. 고쳐야 한다!
 △우리말 'ㄱ' ... 고개 속이다.
 △문자 보낼 때 한글과 너무 싫다.
 △누가 뭐래도 우리말이 최고여~
 △겸손해서 고개 속인 건 아닐까?
 △한글날은 간다.
 △개봉박두, 채팅 신조어 등장...
 △세대양 무안하겠수.
 △우리말이 우리말인지, 외래어인지,
 우주에서 사용하는 언어인지.
 △벼가 무르익어 고개속인 이치인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걸 후세에도
 기억할 수 있을까?
 △딱바로 알고 딱바로 씁시다.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채팅사이트를 없애라!
 △우리말, 우리 열, 우리가 지키자.
 △말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신이다.
 △북거일의 '영어공용화론'도 한뎀했다.
 △한글, 한 많은 글 되다.
 △나는 우리말 파수꾼.

우리말 파괴하는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다간 국어 사전 새로 나오겠다.
 △동국대 선봉 투쟁, 우리 말 사수하자.
 △잘 키운 우리말, 열 외국어 안 부럽다.
 △세종대왕 아시던 화내시겠지?
 △어떻게 국어가 변하니?
 △9일이 한글날인 건 다들 아는지.
 △한글날을 국경일로!
 △은 국민에게 권하노라. '한글'
 △애국자투 가는 지름길, 한글 사랑.
 △고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 써야합니다.
 △한글을 부탁해.
 △우리 아니면 누가 우리말을 쓰겠수.
 △외국어에 침식당하는 거리의 간판들.
 △고개 드는 외국어, 고개 속인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가 지킵시다!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나무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연극 '햄릿'을 보고

너에게 '햄릿'을 권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는 이 말을 '햄릿'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 코미디 프로에서 먼저 접하게 되었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개그맨이 나와 겨우 상황에 끼워 맞춘 대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적어도 내게 있어서 만큼은 그 명언이 다소 가볍게 느껴졌을지 모르다. 하지만 내가 이제껏 기억하던 햄릿의 명대사는 그저 나의 어리석은 기억 속의 한 단면에 불과했다. 연극을 감상한 뒤 느낀, 비장함은 왜 그것이 명대사일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또한 이전에 공연했던 햄릿과는 다른 즉, 햄릿 새로 쓰거나 현대적인 해석보다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정서에 맞는 정통연극으로 공연할 예정이라는 취

지에 맞게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극을 이끌고 배우들의 의상이나 그 시대를 재현한 무대의 모습 등 웅장한 스케일이 매우 인상 깊게 남았다. 특히 햄릿 역을 맡은 배우 '김석훈'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스타급 배우였기 때문에 공연 시작 전부터 이목을 끌 수 있었다. 게다가 그러한 '그'의 연기가 고전극이라는 다소 따분한 장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었다 싶다.
 나는 비록 많은 연극을 감상해 본 훌륭한 관객은 아닐 테지만, 외국의 극을 이 정도로 재현할 수 있다는 데에 자부심마저 들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연극 '햄릿'에 한번쯤 심취해 보기를 권해본다.
 이준영 (정신대1)



독자 사진

주왕산의 가을 풍경
 ◀ 참 너머로 넘실대는 바람 속에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다. 창살 너머로 비쳐드는 햇살사이로 가을빛이 점점이만 하다.
 배인선 (관광대 호텔경영2)

체육관, 일반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같은 날씨가 몹시 반가울 것이다. 나도 운동을 좋아하고 자주 즐기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 운동을 즐기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 대학교에서는 언제든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주캠의 실내체육관은 일반학생들보다 특정학과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내가 1학년이었을 때만해도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체육관을 사용하는 일반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다. 체육관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특정학과와 전용 공간으로 변했고 보이지 않는 '뒷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체육관의 개방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고 일반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학과 시간은 특정학과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학과 외 시간은 잠깐 버리기 일췌이다. 또한 주말과 공휴

일은 사용료를 약 4~6만원을 내야 사용할 수 있거나 놀라울 따름이다.
 체육관은 특정학과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일반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일부는 체육관 운영이나 수리비용으로 들어간다. 체육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용료를 받기 전 컴퓨터 실습실처럼 사용시간표를 작성해 이용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봉부 (법정대 행정4)

바뀌어야 할 대학 술문화

내가 대학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운 것이 바로 '술'이다. 술은 그동안의 타율적이고 억압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대학생활을 접하며 그 자유를 인식하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술이 학생들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늦은 밤, 집에 가는 길, 술집이 즐비한 충무로 길을 걸다 보면 퇴폐적이라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 학생이 술에 취해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취창대고 술 취한 사람들이 서로 패싸움을 벌리는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는 모습이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 그냥 못 본 척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을 볼 사람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게다가 충무로 근처에는 호텔이 있어 수시로 외국인들이 지나 다니는데 그들이 본 한국 대학생이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12년 동안 틀에 짜여진 교육과정 속에서 힘들게 공부한 이유는 단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 들어와 피할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술은 그저 친교의 수단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족할 듯 하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대학문화에 기든 잘못된 음주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정유진 (문과대1)

알림판 의미 살리길

최근 들어 도서관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도서관 입구 로비에 전시된 경주 지지를 보고 우리 문화, 경주 지역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딱딱한 느낌이 들기 쉬운 도서관에 문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 좋았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안내도와 각종의 녹색 안내 표시판은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도서관을 다른 느낌으로 다가서게 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쉽게 도서관 각 자료실을 이용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 전용 게시판이 꽤야 할 4층 게시판이 상업적인 외부 자바로 가득 메워져 있다. 대부분의 게시판이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 교내 자보 붙이는 자리가 맞는지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시설의 개선으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을 많이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알림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황선애 (자연대 수교4)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주차문제 공감한 기사

지나호 학내보도면의 '주차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주차 관리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상적인 10부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외부차량들의 통제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단속해야 하지만 수많은 차량을 단속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나는 주차관리에도 전산화를 도입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이미 교내에서 컴퓨터 실습실을 학생증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주차 관리에도 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카드로 교내관계차량을 관리하고 외부차량을 단속한다면 지금보다 수월할 것이다. 하루빨리 교내 주차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서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한다.
 문성진 (경영대1)



(제1327호 9월 24일자)

토론 논점 분명히 해야

4면의 '대학생이 보는 언론개혁의 한계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기사는 신선하고 좋았으며 대학생들의 난상 토론인 만큼 매우 관심이 갔다.
 그런데 토론의 논점 전달이 불분명해 아쉬웠다. 전체적 내용이 '젊은 행동력으로 언론개혁 이끌어야'라는 문구와 상통되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구체적 대안은 자세히 논하여 결론짓지 않고 막연히 앞서 말한 1인 시위 같은 내용으로 나서는 토론으로 끝내는 것 같아서 의미 없는 결론으로 끝나 버린 느낌이다.
 이보미 (법정대1)

불법 상행위 근절요청

개강을 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내가 새삼 느낀 것은 학교가 상인들의 활동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은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아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그들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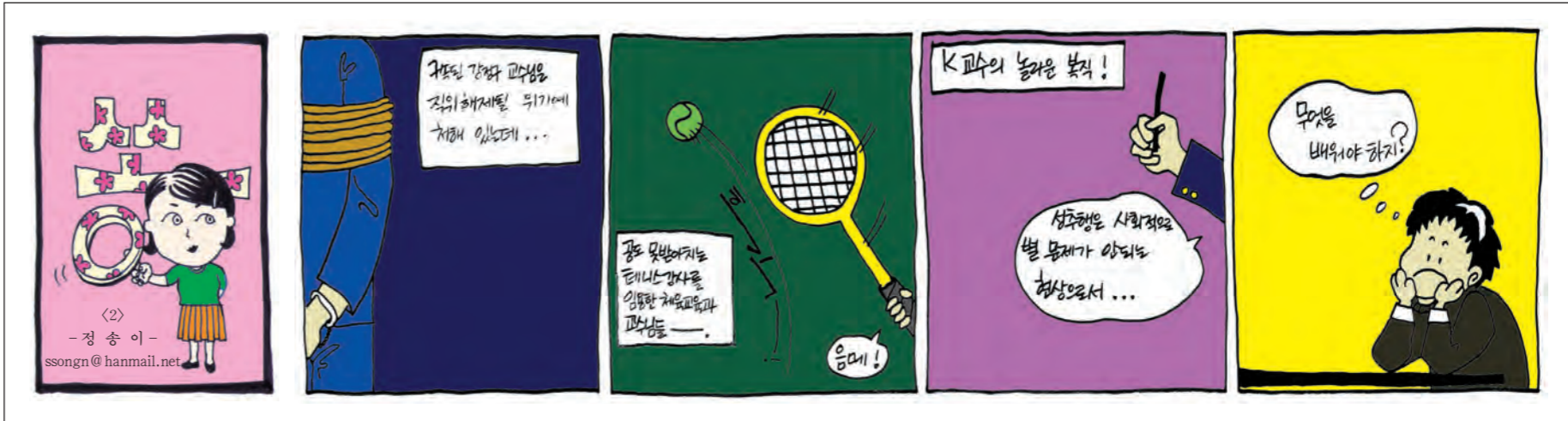
얼마전 도서관 앞에서 영어잡지를 1년 구독하면 자막카세트를 준다는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고민한 끝에 결국 구입은 하지 않았지만 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카세트는 불량이라 고장이 잦고 딱히 수리 받을 곳도 없다고 한다. 또 지난주에는 핸드폰 외관원이 학생회관 앞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별 관심 없이 지나쳤지만 싼 가격으로 학생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느껴졌다.

가격을 낮춘 학생들의 소비심리를 조장하고 물건을 팔기에 열을 올리는 불법상인들의 출입에 대해 학교측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행위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이런 상행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는 우리학교 학생들인 것이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야 하겠고 학교측에서도 그들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학생과 학교측의 양자간의 노력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조재훈 (관광대1)

자취생들의 건강 지킴식

오랜 자취생활 끝에 위장병이 생긴 나는 보건소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매번 선생님은 동대생들은 켈포스를 짜 먹는 요구르트 먹듯이 입에 달고 다닌다고 했다. 그만큼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다. 간혹대생인 동생의 말에 따르면 병원에 실습을 나가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궤양에서 위암까지 위장관련 질환으로 누워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강 지킴식은 세 끼 밥을 챙겨 먹는 거라고 말한다. 나는 자취하는 후배들에게 '세끼 일레븐'을 지키자는 말을 하고 싶다.
 말안죽, 아침 7시에 등교해 저녁 11시에 하교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 양질의 식사를 세 번 하게 되고 또한 아침을 먹음으로써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된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빵과 우유로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꼭 밥을 사 먹으면 말을 하고 싶다. 밥이 정말 보약이다.
 양시내 (법과대 법4)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헬싱어찌개(1500) 참치김치덮밥(1500) 카레돈까스(1500)
화	설렁탕(1500) 마피밥(1500) 불고기비빔밥(1500)
수	만두국백반(1300) 김치볶음밥(1500) 제육덮밥(1500)
목	정타국밥(1500) 오징어소면우침(1500) 떡갈풍기(1300)
금	쇠고기미역국(1500) 닭갈비볶음(1500) 팥뽕국밥(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돈육꽃고추찌개(1300) 치킨볶음밥(1500) 두부김치(1500) 닭도리탕(3200)
화	육개장(1500) 제육김치덮밥(1300) 피자돈까스(1500) 오징어소면우침(3000)
수	갈비탕(1500) 미트볼탕수(1500) 비빔밥(1300) 철판볶음밥(3000)
목	오징어볶음백반(1500) 떡갈고기덮밥(1500) 닭도리탕(1500) 돈갈비찜백반(3200)
금	순두부찌개(1300) 후랑크볶음밥(1300) 돈육명품김정(1500) 두부김치(3000)

(단위:원)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인기형, 백일 휴가 축하해요!! 다음 휴가는 더 맛있는 모습으로 나오세요!!
 -H.J.Y
 △경영학과 94학번 전홍국 남양유업에 취직한 걸 축하해요!!
 -홍지혜
 △보영아, 생일 축하해!! 너무 훌륭한 선물 받고 싶어. -링에 기입하고 싶은 소녀
 △정치 외교학 전공 박준호형, 국가고시 1종 보통 합격 축하!!
 -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라! 모의토익 보느라 수고했다.
 △홍규야, 이사하느라 수고했습당, 학사에서 열심히 사세요!! 자랑한다.
 △국문과 체육대회 하느라 수고했어요.

열심히합니다

△불쾌야총 노래패 '차돌' 첫 데뷔전인 남산골 한마당 준비 열심히 합니다!
 -차돌1기 광쩍이
 △사랑하는 지현아, 힘들게 시작한 공부 1달여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하자.
 △야총 대축제, 남산골 한마당 준비 잘 합니다. 울동패 들플 만세!
 -청일점
 △신사! 한번만 더 열심히 합니다. -순

그리고...

△체육교육 4학년 영호! 빨랑 나아서 중도 4층에서 같이 공부하자. -빨강이저씨
 △동원아, 우리 동기를 잊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예술문창 어동기들
 △호상오빠, 오빠의 풍뎉에 대한 애정은 놀라워.
 △43기 아이들아! 좀더 달라진 모습으로 임하길 기대해 본다. 파이팅~!
 -너희를 사랑하는 형들이

은방글

축하합니다

△원일과 me의 1000일 추가~ -마누라
 △다음주 목요일은 제가 좋아하는 누나의 생일입니다. 축하. -친구 같은 동생
 △김은아, 생일 축하한다. -선배들이
 △10월 10일, 형식아, 생일 축하해!!♡
 △사회계학과 진수현 오빠! 생일 축하! 축하!
 -혜진, 정현
 △블로그 학생회 19기 재영 선배, 생일을 축하해요!
 -진영
 △승진이와 지은이의 1년입니다. 추가 생생화학과 2학년 황은정, 생일 축하해.
 △맹공주, 800일(10/8) 王 추가. -을
 △서슬 썩에 서X호씨, 10월 8일 800일 축하해요~
 -경주 캠 애인이
 △플린스 15기 텡, 생일 추가해.
 △소나미 13기 최진열군의 생일을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동국 간호 2년간 실습하느라 수고했어. △국사학과 답사 다녀온다고 수고했습니다. -나
 △겨·사 회원님들 신문 만드느라 수고했어요. -겨·사의 하나밖에 없는 양이치

열심히합니다

△동대 축구부, 항상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자랑해여. -17기 여학우
 △중문과 교환학생 시험치는 아그들, 잘 치거라. -95, 노파실
 △미진아, 학교 열심히 다니지. -광선
 △유인 선배, 제발 강의 짜지 말고 잘 들어요! 졸업 논문 쓰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혜정이가 이쁜 사람을 시작해요.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해요~♡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근대국(1300) 오징어제육덮밥(1600) 짜장덮밥(1700) 새우까스(1800)
화	소세지찌개(1300) 김치볶음밥(1600) 쇠고기덮밥(1700) 스페니쉬족찜(2000)
수	계란파교(1300) 참치아채비빔밥(1500) 오므라이스(1600) 불낙덮밥(2000)
목	배추국(1300) 어묵아채덮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치킨까스(1800)
금	어묵우국(1300) 카레라이스(1500) 미트볼덮밥(1600) 집채밥(1800)

(단위:원)

경주캠 원효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피망볶음·쇠고기김치전골(2500) 쇠고기덮밥(3500)
화	양송이쇠고기볶음·홍합탕(2500) 돈까스(3000)
수	새우갈비탕·된장찌개(2500) 갈비탕(3500)
목	집포제볶음·토란곰탕(2500) 김밥+칼국수(2500)
금	한방닭탕·들깨우체국(2500) 비빔밥(2500)

(단위:원)